



# 이번주의 말씀

시 79:1-9    합 2:1-4    딤편 2:1-7    눅 16:1-13

## 주일오후예배

[구역개강연합예배] 사회: 최창선 목사

경배와찬양	테힐라 찬양팀
찬    송	310장
기    도	김경숙 집사
성    경	마 13:31-32
설    교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다
헌금(특송)	구역장
광    고	최창선 목사
축    도	김동진 목사
파 송 찬 양	우리를 사용하소서

## 수요일예배

시    간	오후 7시 30분
성 경 봉 독	히9:15
설    교	새언약의 증보자
	박종건 목사

## 금요기도회

시    간	오후 8시30분
장    소	2층 비전홀
강    사	김동진 목사

## 새벽기도회

담    당	담임목사/담당교역자
장    소	3층 사랑홀
시    간	새벽 5시

## 예배 및 헌금위원

□ 다음 주일( 8. 26일) 예배 담당

구 분	1 부	2 부	3 부	오후예배
기    도	최준혁	윤영호	김형필	남애희
성경봉독		이병철	임미영	

헌 금 위 원	1부	2부			3부				
	신일숙	김정남 안은진	김선득 송해숙	김진호 전정숙	류재용	류재일 조방호	박해범 김지영	류재일 서관선	손명철 정해순

※ 온라인 헌금: 신한은행 100-028-714510 (꿈과사랑의교회)

## 금주의 성경읽기

금주의 성경읽기(6개월에 성경일독)

주일(19)	월(20)	화(21)	수(22)	목(23)	금(24)	토(25)
창14-15 마7 느3-4 행7	창16-17 마8 느5-6 행8	창18-19 마9 느7-8 행9	창20-21 마10 느9-10 행10	창22-23 마11 느11-12 행11	창24-25 마12 느13-에1 행12	창26-27 마13 에2-3 행13



## 생명의 양식

### 자기가 못 보는 자신(딤후1:12-17)

매들린 반 헤케라는 사람이 맹점(Blind Spot)이라는 책에서 자동차의 사각지대와 같이 인간에게도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다고 하였다. 성경에도 남의 눈에 티는 보면서 자기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한다고 했다(마7:3). 애굽의 바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는 요청을 했을 때 끝까지 거부하다가 열 번의 재앙을 당하고 적어도 한 집에 한 명 이상씩 죽어 나가는 고통을 겪고 나서야 허락한다. 그리고도 다시 군대를 이끌고 따라왔다가 홍해에서 군대를 다 수장시키고 나서야 끝났다. 궁금한 것은 과연 바로는 자기 고집으로 자기도 나라도 망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을까, 하는 것이다. 그럼 사람이 자신의 어리석음과 허물을 어떻게 하면 빨리 깨달을 수 있을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바울사도가 사도가 되기 전 사울일 때, 그는 경건했고, 신앙의 열심이 있던 사람이었다. 그의 학식과 그의 가문은 누구보다 뛰어났지만 그것 때문에 그는 교만했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반대하는 오만이 자리잡고 있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심하게 핍박했는지 스데반 같은 사람은 돌로 쳐죽였다. 그렇게 빛나간 열심으로 하는 일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또 다른 핍박을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물으신다. '사울야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믿어야 할 주님을 부인하였고 섬겨야 할 주님을 배척하는 어리석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수십년이 지난 후 본문에서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고백한다. 그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고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였다. 자신의 허물과 어리석음과 맹점을 깊이 깨달았다. 언제? 바로 주님을 만나고 나서다. 그는 자신이 자랑하던 학식과 훌륭한 가문과 배경을 배설물처럼 다 버렸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겸손하고 신실하게 사역을 감당하였다. 신앙은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출발이다. 그 길잡이는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우리는 우리 인생의 참 길을 찾아갈 수 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이다. 16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본이 되게 하려고 세워주셨다고 감사하고 있다. 자기 허물을 깨닫는 영혼에게 베푸신 복이다.

## 평신도를 위한 신학 / 교리

### 개혁주의 교회관 - 전투적 교회와 승리적 교회(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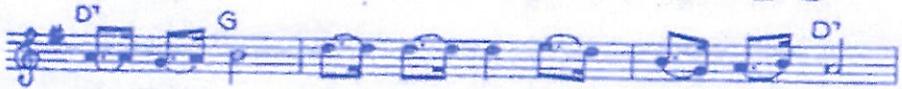
오늘날 교회가 선한 싸움을 중단하고 세속과 타협하는 것은 영적 자살 행위와 같다. 왜 오늘의 교회가 세속화를 부르짖는가? 그것은 싸움을 중단하자는 것이다. 싸움을 하는데는 육신적, 세속적인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힘, 즉 영력이 필요하다. 엡6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영적 무장이 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는가?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이 있는가?

지상의 교회가 전투적 교회라면 전상의 교회는 승리적 교회이다. 지상에서 싸우기 위해 잡았던 칼은 천상에서는 승리의 종려나무 가지로 바뀌고 싸움터의 신음소리는 승리의 개선가가 되며 지상에서의 십자가는 승리의 왕관으로 바뀐다. 이런 승리는 처음부터 승리로 시작하여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무런 희생 없이 얻어지는 것도 아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승리적 교회에 속한 참 성도들은 승리를 얻기 위해 싸움터에서 수많은 상처를 입었으며 또 군기를 높이 들고 전진하던 기수들은 거친 싸움으로 찢어진 군기를 들고 죽음의 계곡에도 뛰어 들었다. 그러나 이 싸움은 승리가 이미 약속되어진 싸움이였다. 요16:33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셨다. 이 승리의 예언은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창3:15에까지 이른다. 지상의 전투적 교회가 반드시 승리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에게 속하기 때문이다. 바울은 죄와 싸우다가 상처받은 자기 자신의 처참한 모습을 말하고 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다(롬8:37). 히브리서 기자는 지상의 교회가 최후의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을 내다보면서 장차 이르게 될 곳이 "시온 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히12:22-23)이라고 한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영예로운 영적 전투에서 모든 것을 바친 순교자들에게 승리의 선물을 주실 것이다(계21:2).

# 성경 목록가



창 세기 출애굽기 레 워 - 기      민 수기 신 명기  
 에 스라 느헤미야 에 스 - 터      율 기 - 시 편 -  
 다 니엘 호 - 세아 요 - - 엘      아 모스 오 바다  
 마 태 - 마 - 가 - 누 가요 한      사 도 - 행 전 -  
 데 살 - 로 - 니가 전 후 - 서      디 모데 전 후 -  
 유 다서 요 - 한 - 제 시 - 록      구 약 - 삼 십 -



여 - 호수 아      사 - 사기 롯 기 -      사무 엘상 하  
 잠연 전도 서      아 - 가 - 이 사야      예레 미 - 야  
 요 - - - 나      미가 나훔 하 박국      스 - 바 - 냐  
 로 - 마 - 서      고 - 린도 전 후 -      갈라 디아 서  
 디 - 도 - 서      빌 - 레몬 히 브리      야 - 고 - 보  
 구 - 권에 다      신 - 약 - 이 십 -      칠 - 권으 로



열 - 왕 기      상 - 하 -      역 - 대 상      하  
 예레 미야      애 - 가 -      에 - 스 -      열  
 학 - 개 -      스가 라 -      말 - 라 -      기  
 에베 소서      벨 - 립보      골 - 로 -      서  
 베 - 드로      전 - 후 -      요 한 일 이      삼  
 성 - 경 -      육 - 십 -      육 권 이 -      라

## 우리가 기도하며 돕는 곳

### ■ 국내 미자립

- 총신백만기도후원회 (총신대학교)
- 농촌미자립교회 (민병권목사)
- 도시개척교회 (권영광목사)
- 동백생명샘교회 (김광중목사)
- 장애인나눔공동체 (이희규목사)

### ■ 해외선교

- 라오스 (계성혜선교사)
- 캄보디아 (고영실선교사)

### ■ 군선교

- 미래군선교네트워크 (윤병국목사)
- 오성진 군목(제2군수지원사령부)

2018년 8월 현재

선교헌금 계좌 : 신한은행 140-011-247903 (꿈과사랑의교회)

